

# 일제강점기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경력에 대한 고찰 - 조선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

<sup>1</sup>장재립, <sup>2</sup>김남일, <sup>2</sup>차웅석

<sup>1</sup>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역사학과, <sup>2</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 A Study on Sakae Miki's Experience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a Focus on His Activities in Colonial Korea

<sup>1</sup>Zhang Zili, <sup>2</sup>Kim Namil, <sup>2</sup>CHA Wung-seok

<sup>1</sup>Dept. of History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akae Miki, a Japanese medical historian, was a leading figure in the study of medical history in the Korean Peninsula due to his three representative books, Bibliography of Korean medicine, ancient and mediaeval(朝鮮醫書誌),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and of diseases in Korea(朝鮮醫學史及疾病史), and A Chronological table of Korean medicine(朝鮮醫事年表). After graduating from Kyushu Imperial University's Faculty of Medicine in 1927, he moved to Seoul (then called Keijo) the following year and lived in colonial Korea until 1944. As a doctor and bureaucrat working for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en in colonial Korea, this study focused on his career activities. It was in 1928 when he entered Keijo Imperial University's Faculty of Medicine where he participated in experimental research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Shinosaki, who was the chief of the third Institute of Medicine. It was discovered that he received his doctorate in medicine from Kyushu Imperial University in August 1932. In 1933, he became an assistant professor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started working at the Keijo Prefectural Resident Hospital until 1935. In August 1935, he was appointed as the director of Suigen Provincial Hospital where he served until 1944. While actively practicing medicine in colonial Korea, he spent his spare time researching Korean medical history, which he used for the basis of his later publications.

Key words : Sakae Miki, History of Korean Medicine, Keijo Imperial University, Japanese Colonial Period

## I. 서론

한국의학사를 말할 때 미키 사카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

다. 그의 『조선의학사급질병사(朝鮮醫學史及疾病史)』, 『조선의서지(朝鮮醫書誌)』, 『조선의사년표(朝鮮醫事年表)』는 한국의학사 연구 분야에서 대표적인 저술로 꼽힌다. 그의 저술들은 남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sup>1)</sup>

미키 사카에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로 김호는 미키 사카에

접수 ▶ 2022년 11월 17일 수정 ▶ 2022년 11월 21일 채택 ▶ 2022년 11월 22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 02-961-2274 E-mail : chawung@khu.ac.kr

\*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미키 사카에의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 26일 제33회 한국사학회 정기학술대회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구상되었다. 그 후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 미키 사카에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제34회 한국사학회 학술대회(2022년 6월 22일)에서 발표하면서 초보적인 내용이 형성되었다.

1) 중국의 경우, 최수한(崔秀漢)의 『조선의적고(朝鮮醫籍通考)』에서 미키 사카에의 저술을 많이 인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崔秀漢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19, 24, 123, 173, 184, 190, 205, 224, 239, 242, 250, 257, 258, 259, 262, 263, 264, 266, 271, 296.) 그 외에 마계홍의 『침구학통사』에서도 『조선의서지』를 인용된 바가 있다. (馬繼興著, 『針灸學通史』,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1:812.) 북한의 경우, 홍순원의 『조선보건사』에서 『조선의학사급질병사』를 여러 번 인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순원, 『조선보건사』, 서울:청년세대, 1989:184, 200, 239, 261.) 한편, 근년에 출판된 전통의학 학술지인 「고려의학」을 살펴보면, 몇 편의 논문에서 『조선의서지』를 참고 인용함을 발견하였다. (조선향, 김은희, 「고려의학교전 『남약중치방』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고려의학, 2016;(4):31-32. 박광일, 김은희, 「15세기 의학교전 『구급방』의 복원에 대한 연구」, 고려의학, 2017;(2):13.)

의 생애와 『조선의학사급질병사』의 체제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의 저작 목록을 번역해서 나열하였다.<sup>2)</sup> 신동원은 『조선의학사급질병사』를 비롯한 미키 사카에의 한국의학사 연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동시에 그 책에 담긴 ‘식민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sup>3)</sup> 신동원은 또한 미키 사카에와 김두종의 생애 및 저술을 비교함으로써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 적이 있었는지를 논하였다.<sup>4)</sup> 서기재는 미키 사카에의 한국 감염병사 연구에 주목하였으며, 『조선의학사급질병사』에서 반영된 한일 의학 관계사를 논술하였으며 미키 사카에의 연구 과정과 연구 목록을 재정리하였다.<sup>5)</sup>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급질병사』를 중심으로 검토를 해왔고 『조선의서지』와 『조선의사년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즉 그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정리해서 펴낸 책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규슈제국대학<sup>6)</sup> 의학부를 졸업하여 식민지 조선에 와서 발표한 다양한 논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아직 없다. 그의 전체 일생에 대한 논술은 있으나, 조선에서의 활동 행적에 대한 문헌적인 검토는 아직 부족하다. 선행 연구<sup>7)</sup>에서는 미키 사카에가 조선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박사를 취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경성제대 의학박사’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식민지 조선에서 미키 사카에의 활동과 경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의학박사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학자(醫史學者) 미키 사카에의 의사(醫師) 모습, 의사로서 그가 식민지 조선에서 10여 년간의 활동 행적, 청년 의사와 의사학 연구자라는 이중(二重) 신분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미키 사카에의 연표<sup>8)</sup>를 따라 1935년을 분계선으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활동을 경성제국대학 시절(1928~1935년)과 경기도립수원의원(京畿道立水原醫院) 시

절(1935~1944년)로 나누어 논의할 것이다. 그가 경성제대에 있는 동안 발표한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을 발굴하여 의학박사 취득 경위를 밝힐 것이다. 일제강점기 발행한 『경성일보(京城日報)』 등 신문 기사 자료, 『조선의학회잡지(朝鮮醫學會雜誌)』, 『만산지의계(滿鮮之醫界)』, 『중외의사신보(中外醫事新報)』 등 일본어 의학 잡지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 II. 본론

### 1. 의학사(醫學士)에서 의학박사로 - 경성제국대학 재직 시기(1928~1935년)

#### 1) 의학부 제3내과학교실 입국(入局)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은 1899년(明治 32)에 대한제국 정부가 세운 광제원(廣濟院)에서 시작되어, 1907년(明治 40)에 병원 건물 신축으로 대한의원(大韓醫院)으로 이름을 바꿔 개원식을 개최하였는데 1910년(明治 43)에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으로 다시 개칭하였다<sup>9)</sup>. 1928년(昭和 3)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으로 재출범하였다. 1928년 6월 21일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병원 개원식도 개최하였다.<sup>10)</sup>

1928년 4월에 규슈제국대학 조교수였던 시노사키 테츠시로(篠崎哲四郎)가 경성제대 교수 및 의학부 내과학 제3강좌 담임(擔任)으로 임명되었다.<sup>11)</sup> 경성제대 의학부 내과학 강좌는 3개가 있었는데, 제1내과는 전염병과 호흡기, 제2내과는 소화기와 내분비, 제3내과(시노사키 내과, 篠崎内科)는 순환기와 신경의 과목을 담당한다고 하였다.<sup>12)</sup> “제3내과의 (시노사키)교수는 제일 젊으시고, 강의는 활발하고

2) 김호. 「醫史學者三木榮의 생애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 의사학. 2005;14(2):101-122.

3) 신동원.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한국의학사 연구 - 성취와 문제점」, 역사문화연구 특별호. 2005:75-92.

4) 신동원. 「라이벌: 김두중(金斗鍾)과 미키 사카에(三木榮)」, 애산학보. 2012;38:83-113.

5) 서기재. 「미키 사카에의 연구와 생애를 통해 본 한일 의학 관계사」, 의사학. 2020;29(3):1065-1100.

6) 지금의 규슈대학(九州大學).

7) 김호. 앞의 논문. p. 120. 미키 사카에의 간단한 이력 중에서.

8) 부록 참고.

9) 朝鮮總督府醫院.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京城:朝鮮總督府醫院. 1928:1-11.

10) 서울대학교병원 편. 『서울대학교병원사』, 서울:서울대학교병원. 1993:839.

11) “任京城帝國大學教授 九州帝國大學助教授從六位 篠崎哲四郎”.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1928.4.25., p. 291.) “醫學部勤務ヲ命ス, 內科學第三講座擔任ヲ命ス 京城帝國大學教授 篠崎哲四郎” (『敍任及辭令』, 『朝鮮總督府官報』, 1928.4.25., p. 292.)

12) 通堂あゆみ. 「京城帝國大學醫學部における「醫局講座制」の展開」, 酒井哲哉, 松田利彦 編. 『帝國日本と植民地大學』, 東京:ゆまに書房. 2014:159-160.

논리 정연하여 연구실 일은 이 곳이 가장 성행하였다. 반에 서는 다섯 명이 들어갔는데...”라는 평가도 있었다.<sup>13)</sup>

미키 사카에는 1927년에 규슈제대 의학부를 졸업하였고 1928년 6월에 경성제대 의학부 제3내과에 입국하였다. 미키 사카에는 제3내과의 인원 구성<sup>14)</sup>에 따르면, 1929년에는 없었지만 1930년부터 1935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제국대학일람』<sup>15)</sup> ‘의학부 직원 내과 학 제3강좌 담임(醫學部職員 內科學第三講座擔任)’란을 참조하면, 미키 사카에의 직위 및 재직 상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경성제국대학일람』에 기재된 미키 사카에의 연도별 재직 상황 및 직위 변화

연도	내용
昭和4年(1929)版	미키 사카에 없음
昭和5年(1930)版	助手 醫學士 三木榮 大阪
昭和6年(1931)版	助手 醫學士 三木榮 大阪
昭和7年(1932)版	講師 醫學士 三木榮 大阪
昭和8年(1933)版	助教授 醫學博士醫學士 三木榮 大阪
昭和9年(1934)版	助教授 醫學博士醫學士 三木榮 大阪
昭和10年(1935)版	미키 사카에 없음

표 1에 따르면, 그는 1930년에 처음에 조수(助手), 그 다음 해인 1932년에 강사, 그리고 1933년에 조교수이자 의학 박사가 되었다. 1935년 8월 미키 사카에가 경기도립수원의 원장으로 부임(赴任)한 관계로 해당 연도의 『경성제국대학 일람』에서는 그의 이름이 안 보인다.

## 2) 의학박사 취득 경위

미키 사카에 본인이 저술한 『의학연구 60여년의 저작 목록 및 약력』<sup>16)</sup>에서는 “1932년 8월 의학박사, 간뇌 당 대사 조절 증추의 연구”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학교는 밝히 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듯이 선행연구에서는 “경성제대

의학박사”라고 주장하였는데 근거는 없었다. 필자가 조사한 결과, 미키 사카에는 경성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고 그의 학부 모교인 규슈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취득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우선 1933년(昭和 8)판 『규슈제국대학일람』<sup>17)</sup>의 ‘학위 록(의학박사)’ 항목에서 미키 사카에의 이름을 찾아내었다. 취득 날짜는 1932년 8월 17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37년의 『학위대계 박사씨명록』과 1944년의 『일본의학박사록』에서도 그가 규슈제대 의학박사를 받았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현재의 규슈대학 도서관에서 미키 사카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찾지 못하였다. 대신에 1932년 5월에 발행한 『후쿠오카의과대학잡지』에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과 같은 제목으로 된 논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하였다.<sup>19)</sup> 이 논문은 1931년 12월 19일에 접수되었고 권말에 독일어 초록도 첨부되어 있다.

「간뇌에서 함수탄소 신진대사 조절 증추에 관한 실험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된 이 논문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바가 있다.

본 논문의 개요(大要)는 이전에 제26회 일본 내과학 회총회(쇼와 4년 4월 센다이시에서 개최), 제17회 조선의학회총회(쇼와 4년 5월 경성부에서 개최), 제27회 일본 내과학총회(쇼와 5년 4월 오사카(大阪)시에서 개최), 제18회 조선의학회총회(쇼와 5년 9월 경성부에서 개최), 제19회 조선의학회총회(쇼와 6년 9월 경성 부에서 개최)에서 발표되었다.<sup>20)</sup>

필자는 위의 기술을 근거하여 『일본내과학회잡지』와 『조선의학회잡지』를 참고해서 미키 사카에의 학회 발표 실적을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3) 長谷川進. 『朝鮮生まれの引揚者の雜記』. 私家版. 1990. (위의 책. p. 179 재인용.)

14) 通堂あゆみ. 앞의 책. p. 158-159.

15) 『京城帝國大學一覽 1-14』(제어번호: CNTS-00048002093.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검색일: 2022.6.2.) 참조.

16) “昭和7年 8月 醫學博士(間腦の糖代謝調節中樞の研究)”(三木榮. 『醫學研究六十餘年 著作目錄 付略歴』. 大阪:私家版. 1990:1.)

17) “學位錄(醫學博士) 三木榮 同(昭和7年8月17日)”(九州帝國大學 編. 『九州帝國大學一覽』. 福岡:九州帝國大學. 1933:531.)

18) 大日本博士錄編輯部 編. 『學位大系博士氏名錄 昭和12年用』. 東京:發展社出版部. 1937:206. 東西醫學士編輯部 編. 『日本醫學博士錄』. 東京:皇國圖書株式會社創立事務所. 1944:496. 다만 두 책에 논문 제목에 대한 기재가 다소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間腦ニ於ケル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に關スル實驗的研究”라고 하며 후자에서는 “間腦の糖質代謝調節中樞の研究”라고 되어 있다.

19) 三木榮. 「間腦ニ於ケル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ニ關スル實驗的研究」. 福岡醫科大學雜誌. 1932;25(5):135-232. 후쿠오카의과대학은 규슈제국 대학의 전신(前身)이다.

20) “本論文ノ大要ハ曩に第二十六回日本內科學會總會(昭和四年四月仙臺市ニテ開催)、第十七回朝鮮醫學會總會(昭和四年五月京城府ニテ開催)、第二十七回日本內科學會總會(昭和五年四月大阪市ニテ開催)、第十八回朝鮮醫學會總會(昭和五年九月京城府ニテ開催)、第十九回朝鮮醫學會總會(昭和六年九月京城府ニテ開催)ニ於テ之ヲ發表セリ。”(위의 논문. p. 135)

표 2. 1929~1931년 미키 사카에의 학회 발표 실적

날짜	학회명	개최지	발표 제목	발표 유형	수록 학술지	비고
1929.4.1-3.	제26회 일본내과학회총회	일본 도호쿠제국대학	간뇌 특히 루키스체에 관한 실험적 연구	총회 연설	일본내과학회잡지 <sup>21)</sup>	공저자
1929.9.20-22.	제17회 조선의학회총회	경성제국대학 <sup>22)</sup>	루키스체와 신진대사	총회 연설	조선의학회잡지 <sup>23)</sup>	단독저자
1930.4.2-4.	제27회 일본내과학회 총회 <sup>24)</sup>	일본 오사카	회백결절 기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총회 연설	일본내과학회잡지 <sup>25)</sup>	공저자
1930.9.20-21.	제18회 조선의학회 총회	경성제국대학	적핵 기능의 지견 보유	총회 강연	조선의학회잡지 <sup>26)</sup>	공저자
1931.4.1-3.	제28회 일본내과학회 총회	일본 도쿄제국대학	다시 회백결절 기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총회 연설	일본내과학회잡지 <sup>27)</sup>	공저자
1931.9.19-20.	제19회 조선의학회 총회	경성제국대학	간뇌 특히 회백결절과 당 신진대사에 관한 실험적 연구	총회 강연	조선의학회잡지 <sup>28)</sup>	단독저자

표 2에 따르면, 미키 사카에는 박사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일본과 조선에서 6번 학회 발표에 참여하였다. 일본 내과학 총회 및 제18회 조선의학회 총회의 발표는 모두 공동 저자로 되어 있다. 1929년의 제17회와 1931년의 제19회 조선의학회 총회에서 그는 단독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시노사키 내과학교실’ 소속으로 조선의학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sup>29)</sup>

미키 사카에의 논문은 여러 번의 학회 논문 발표를 거쳐 1932년 5월에 발행한 『후쿠오카의과대학잡지』에 박사학위 논문 전문이 등재되었다.<sup>30)</sup> 그 후 1932년 6월에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교수회에서 그의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가 통과되었다. 학위 청구논문 심사 요지는 1932년 11월에 발

행한 『후쿠오카의과대학잡지』에 실렸다.<sup>31)</sup>

심사 요지 뒤에 논문 실적으로 삼은 ‘참고논문(參考論文)’ 6편이 실려 있다. 앞의 3편은 그가 공저자로 학회에서 발표한 후에 『일본내과학회잡지』에 수록된 논문이고 뒤의 3편은 조금 색다르다. 4번은 「무원록에 대하여」<sup>32)</sup>, 5번은 「신주무원록의 고찰」<sup>33)</sup>, 6번은 「조선관 신용경을 통해 본 일본과 조선의 의학 교류」<sup>34)</sup>라는 제목으로 모두 그가 1929~1931년 동안 『중의외사신보』<sup>35)</sup>에 연재한 논문이다.

미키 사카에는 「신주무원록의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신주무원록』을 찾아내 직접 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21)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重松尚義,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間腦ニルキス體ニ關スル實驗的研究」. 日本內科學會雜誌. 1929;17(2):93-329.  
 22) 『醫海時報』 1831호(1929년 9월 21일 발행) 25쪽에 따르면 이번 조선의학회 총회는 경성제대 의학부 기조과 제3강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번 학회는 의학부 건물에 준공되자마자 처음에 동 부 강당에서 의학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한다.  
 23) 三木榮. 「ルキス體ト新陳代謝」. 朝鮮醫學會雜誌. 1929;19(11):170.  
 24) 『醫海時報』 1856호(1930년 3월 15일 발행) 19쪽에 따르면 제27회 일본내과학회총회는 제8회 일본의학회의 제7분과회로서 1930년 4월 2·3·4일에 오사카시 중앙공회당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25)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灰白結節機能ニ關スル實驗的研究」. 日本內科學會雜誌. 1930;18(2):155-421.  
 26) 伊東俊一, 三木榮. 「赤核機能ノ知見補遺」. 朝鮮醫學會雜誌. 1930;20(11):215.  
 27)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東郷直男 외. 「再ヒ灰白結節機能ニ關スル實驗的研究」. 日本內科學會雜誌. 1931;19(2):129-375.  
 28) 三木榮. 「間腦ニ於ケル水炭素新陳代謝トニ關スル實驗的研究」. 朝鮮醫學會雜誌. 1931;21(11):121.  
 29) ‘제17회 조선의학회 총회 순서’라는 학회 팸플릿 뒤에 수록된 『조선의학회 회원명부』에서 미키 사카에를 찾아볼 수 있다. (朝鮮醫學會. 『第十七回朝鮮醫學會總會順序(昭和四年)』. 1929;6. 서울대학교도서관, [https://ap01-a.alma.exlibrisgroup.com/view/UniversalViewer/82SNU\\_INST/12802980040002591](https://ap01-a.alma.exlibrisgroup.com/view/UniversalViewer/82SNU_INST/12802980040002591). 검색일: 2022.06.02).  
 30) 三木榮. 「間腦ニ於ケ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ニ關スル實驗的研究」. 135쪽에 의하면 이 논문은 1931년 12월 19일에 접수되었다고 한다.  
 31) 「學位請求論文審査要旨」. 福岡醫科大學雜誌. 1932;25(11):245-247.  
 32) 三木榮. 「無冤錄ニ就テ」. 中外醫事新報. 1929;(1152):499-509. 三木榮. 「無冤錄ニ就テ(二)」. 中外醫事新報. 1929;(1153):601-607. 三木榮. 「無冤錄ニ就テ(三)」. 中外醫事新報. 1929;(1154):656-660.  
 33) 三木榮. 「新註無冤錄」. 中外醫事新報. 1930;(1163):433-444.  
 34) 三木榮. 「朝鮮版神應經ヲ通シテ見タ日鮮醫學ノ交渉」. 中外醫事新報. 1931;(1176):491-498.  
 35) 1928년 1월의 1131호부터 일본의사학회(日本醫史學會)의 기관지로 발간하여 1941년 1월의 1287호부터 학술지명을 『일본의사학잡지(日本醫史學雜誌)』로 바꾸었다. (酒井シツ. 「日本醫史學會の沿革」. 醫學圖書館. 1972;19(3):249-252. 참조)

탈고에 즈음하여 유익한 조언을 여러 번 해주신 나카 무라 이쿠이치 씨 그리고 이 방면에서 다대한 흥미를 갖고 계시고 항상 편달(鞭撻)을 주신 시노사키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sup>36)</sup>

그는 「조선관 신용경을 통해 본 일본과 조선의 의학 교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소장본에서 옛 규장각의 도서였던 것 중 조선관 『신용경』을 찾아냈다. 각필(攔筆)함에 있어서 제 이 방면의 연구에 흥미가 있으시고 항상 편달과 도움을 주신 시노사키 교수님께 삼가 깊이 감사드린다.<sup>37)</sup>

위의 내용을 통해 미키 사카에는 지도교수인 시노사키 교수 밑에서 의학 실험 연구에 참여하면서 의화학 연구도 병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 병원에 재직하면서 경성제대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조선 의서에 관한 연구에서 일정 성과를 취득하였다. 그의 의화학 연구 성과로서 『중외의사신보』에서 발표한 3편의 논문이 의학박사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논문 실적으로 인정되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미키 사카에는 왜 1928년부터 재직할 경성제대가 아니라 자기의 모교인 규슈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을까? 그 이유는, 그가 경성제대에 들어간 해에 의학부는 아직 대학원 교육 및 박사 수여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sup>38)</sup>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 5월에 「경성제국대학관제」의 공포와 더불어 예과를 개교하였다. 1926년 4월 1일 총독부령 제30호로 대학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어 의학부 규정의 교과과정에 따라 1926년 5월 1일부터 의학부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가 개교하였다.

1929년 7월 1일에 「의학부규정중개정(醫學部規程中改正)」에 의하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지정된 학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의학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하였다.<sup>39)</sup>

경성제대 의학박사 수여 제도는 1932년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졌다. 1932년 1월 13일에 일본 문부성의 승인을 받아 「경성제국대학학위규칙(京城帝國大學學位規則)」을 만들었는데 이 규칙에 따라 대학원이 설치되었다. 1932년 4월 25일에 비로소 2명의 신입생이 등록하였다.<sup>40)</sup>

한편 규슈제대의 경우, 1898년(明治 31) 12월 9일에 반포한 학위령에서 이미 의학박사 학위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졌고 대학 통칙(通則)에서도 대학원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다.<sup>41)</sup> 30여 년 앞서 대학원 교육을 시작한 규슈제대에서 미키 사카에가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의 분석으로 미키 사카에가 1932년 규슈제대 의학박사를 취득한 과정과 그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1932년 6월 25일, 26일의 『경성일보』에 “미키 씨 의학박사에”, “아침의 화제”라는 제목으로 미키 사카에의 의학박사 취득과 관련된 기사 두 편이 실렸다는 점이다.

6월 25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그림 1)

미키 씨 의학박사에(三木氏醫博に)

성대(城大, 경성제대)의학부 시노사키 내과교실 조수 미키 사카에 씨는 지난 6월 21일에 「간뇌에서 함수탄소 신진대사 조절 증추에 관한 실험적 연구」란 제목으로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의학박사가 되었다.

이 논문은 시노사키 교수가 개정한 입체뇌실험기를 사용하여 고양이에 있어서 간뇌 특히 회백관절(灰白關節)과 당의 신진대사에 관하여 실험적 연구를 진행해서 부뇌실험(副腦室核)은 간뇌에서 당의 신진대사 증추이자 조절성 기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진은 미키 씨)<sup>42)</sup>

36) “今回京城帝國大學圖書館にて新註無冤錄を見出し親しく披見し得た故…” “脱稿に際し、有益な御助言の數々を賜つた中村郁一氏竝に此の方面に多大の興味を有せられ常に御鞭撻被下し篠崎教授に感謝の意を表す。” (三木榮, 「新註無冤錄攷」, 中外醫事新報, 1930;(1163):434, 444.)

37) “現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の藏本で、舊奎章閣の圖書であつたものの中に、朝鮮版神應經を見出した。” “攔筆するにあたり私のこの方面の研究に興味を有せられ、恒に御鞭撻御援助を賜つた篠崎教授に謹んで深謝する。” (三木榮, 「朝鮮版神應經ヲ通シテ見タ日鮮醫學ノ交渉」, 中外醫事新報, 1931;(1176):491, 498.)

38) 필자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경희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영남 선생님에게서 중요한 힌트를 얻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영남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39) 「沿革略」, 『京城帝國大學一覽 自大正十五年(昭和二)年』, p. 3. (제어번호: CNTS-00048002093.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검색일: 2022.6.2.) 李忠浩, 「日帝植民地 統治下の醫師 教育 活動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중심으로-」, 경주사학, 1996;15:267, 268, 289, 290.

40) 李忠浩, 위의 논문, p. 290.

41) 「學位」, 『九州帝國大學一覽 明治44-45年』, 1912, p. 24. 「九州帝國大學通則」, 『九州帝國大學一覽 明治44-45年』, 1912, p. 62.

42) “三木氏醫博に 城大醫學部篠崎内科教室助手三木榮氏は去る六月廿一日 『間腦に於ける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に關する實驗的研究』と題する學位論文が通過して醫學博士となつた。右論文は篠崎教授改案の立體腦實驗器を使用し、猫に就き間腦殊に灰白關節と糖新陳代謝とに關する實驗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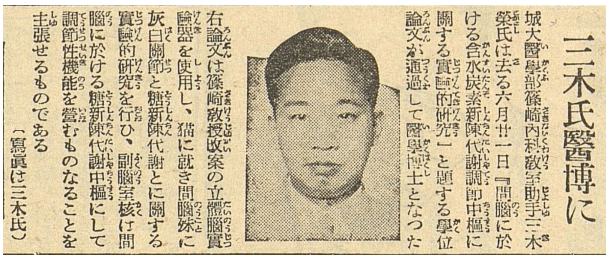


그림 1. 『경성일보』 1932년 6월 25일 7면 기사<sup>43)</sup>

다음날인 6월 26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아침의 화제(朝の話題)

「간뇌에서 함유탄소 신진대사 조절중추에 관한 실험적 연구」란 논문에 의하여 성대 미키 사카에 씨는 박사가 되었다. 축하한다.

그런데 인간은 현대에도 과거에도 똑같고, “뇌 속에 아무것도 없다(腦(囊)中無一物)”라는 말도 있는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대단한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인가. 물론 학술적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한 바이지만.....

어찌 알았겠느냐, 미키 박사의 연구인 「간뇌에서 함유탄소 신진대사 조절 중추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인간이 아니라 고양이의 뇌에 의거한 것이니 이제 와서 “야옹(ニャン)”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sup>44)</sup>

미키 사카에가 6월 21일에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의학박사가 된 지 불과 4일 후인 25일의 『경성일보』에 이 소식이 나왔다. 본인이 신문에 토포해서 올리도록 했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기사는 논평처럼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드러나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전날의 기사와는 다른 기자가 쓴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의학박사 논문의 바탕이 된 실험적인 연구는 스승이자 지도교수인 시노사키 교수에게서 많은 도움이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 의학박사를 받은 다음 해인 1933년에 경성

제대 강사였던 미키 사카에는 자연스럽게 조교수(助教授)가 되었다. 그러나 1932년의 『경성일보』에도 후에 그가 개인적으로 펴낸 회고 자료집인 『의학연구 60여년의 저작 목록 및 약력』에도 박사학위의 수여 학교가 규슈제대임을 밝히지 않았다. 그가 의학박사를 받은 후에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던 고양이 실험에 관한 논문이 다시 나온 적은 없었다. 이와 달리 그의 평생 취미인 의과학 연구에서 뜻깊은 성과가 끊임없이 나왔다.

3) 경성부립경비진료소(京城府立輕費診療所) 진료 참여

경성부립부민병원(京城府立府民病院)의 전신인 경성부립 경비진료소는 1933년 1월 16일에 경성부청 전(前)호적계실에서 임시 개소하였다. 1934년 3월 3일에 황금정(黃金町) 6정목(丁目)에 건물을 신축하여 ‘경성부립부민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식으로 개원하였다.<sup>45)</sup>

1933년 1월 7일의 『경성일보』에는 ‘경비진료 16일부터 시작, 본관과 분관이 준비됨’<sup>46)</sup>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경성부립진료소가 16일부터 진료를 개시함을 알린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진료소 본관 소장사무촉탁(所長事務囑託)은 성대 의학부 교수 시노사키 테츠시로 박사, 부소장 사무촉탁(副所長事務囑託)은 성대 조교수 미키 사카에 박사”라고 되어 있다. 마지막에 ‘직원의 면면(職員の顔ぶれ)’에서는 ‘의원촉탁(醫員囑託) 미키 사카에’라고 되어 있어 그가 진료소의 핵심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인 1933년 1월 8일의 조선어 신문지 『중앙일보』<sup>47)</sup>와 『매일신보』<sup>48)</sup>에도 오는 16일에 경비진료소가 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다. 미키 사카에는 ‘의원촉탁’으로 두 기사의 뒤에 진료소 구성원 명단에 나와 있다.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은 주로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층을 대상으로 의료를 제공한 곳이었다. 경비진료소의 개소(開所) 소식은 일본어 신문지 『경성일보』는 물론 조선어

研究を行ひ、副腦室核は間腦に於ける糖新陳代謝中樞にして調節性機能を營むものなることを主張せるものである。(寫眞は三木氏) (京城日報. 1932. 6.25.(토요일), 7면)

43)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25910552](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25910552). 검색일: 2022.3.17.  
 44) “朝の話題 『間腦に於ける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に關する實驗的研究』と云ふ論文に依り城大三木榮氏は博士になつた、目出度し。處で人間の現代に於ても過去に於ても同様であるが『腦(囊)中無一物』と云ふ言葉があるが博士の研究に依るとどうして無一物處が大變な代物が澤山ある、勿論學術的に依る我等凡人の知る能はざる處であるが……何ぞ知らん、三木博士の研究せる『間腦に於ける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に關する實驗的研究』は人間ならぬ猫の腦に依つたものであるから今更ニャンとも云へない。” (京城日報. 1932.6.26.(일요일), 8면)  
 45) 京城府社會課 編. 『京城府社會事業要覽』. 京城:京城府社會課. 1934:60-61.  
 46) 「經費診療 16日から開始 本館分館準備なる」. 京城日報. 1933.1.7., 11면.  
 47) 「問題가 만든 經費診療所開所 ◇十六일부터 진찰개시 開所日까지에 施設完了」. 中央日報. 1933.1.8., 2면.  
 48) 「經費診療所 所員等決定 지난 卅一일에 발령하였다 十六日에 開所한다」. 每日申報. 1933.1.8., 2면.

신문지에도 하루 뒤에 실렸다. “경성부청의 구료사업(救療事業)”이라고 선전한 경비진료, 즉 저렴한 진료비로 경제상 여유가 없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의료 구제를 전개한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의학박사이자 경성제대 조교수인 미키 사카에는 1933년에 지도교수인 시노사키 교수를 따라 경성부립경비진료소에서 함께 진료 활동을 시작하였다. 1934년 3월에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경성부립부민병원으로 개칭되어 개진식(開診式)도 열렸다. 이때 시노사키 교수가 원장사무취급(院長事務取扱)을 역임하고 미키 사카에는 내과 의료진의 두 번째 순위에 있다는 것을 의학 잡지 『만선지의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 2. 경성제국대학에서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 도립의원장 재직 기간(1935~1944년)

미키 사카에는 1935년 8월에 경기도립수원의원장으로 부임하였다. 부임하기 직전 8월 16일에 그는 취임 인사를 위해 경기도립인천의원 신임원장 다무라 미마(田村實眞)와 함께 『경성일보』 신문에 방문하였다는 것을 기사로 통해 알 수 있다.<sup>50)</sup>

1935년 8월 24일의 『조선신문』에는 ‘미키원장 착임’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그림 2)

미키원장 착임(三木院長着任)

【수원】 이번 성대 의학부 시노사키내과 조교수에서 수 원도립의원장으로 영전(榮轉)한 미키 사카에 박사는 8월 21일 오후 3시 20분에 도착한 열차에서 가족, 동반, 관청의 많은 사람의 출영(出迎)을 받아 착임하였다. 22일 치바(千葉) 서무과장(庶務課長)의 안내로 여러 관청, 학교, 회사, 은행, 민간의 유지(有志) 등과 인사하러 역방(歷訪)하였다.

동 원장은 오사카 사카이시(堺市) 사람으로 지난 쇼와

2년 3월 규슈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후에 계속해서 같은 의학부의 가네코(金子)내과에서 근무하였다가 쇼와 3년 6월 성대 의학부 시노사키내과로 전임하여 쇼와 7년 6월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秀才)이다. (사진은 미키원장)<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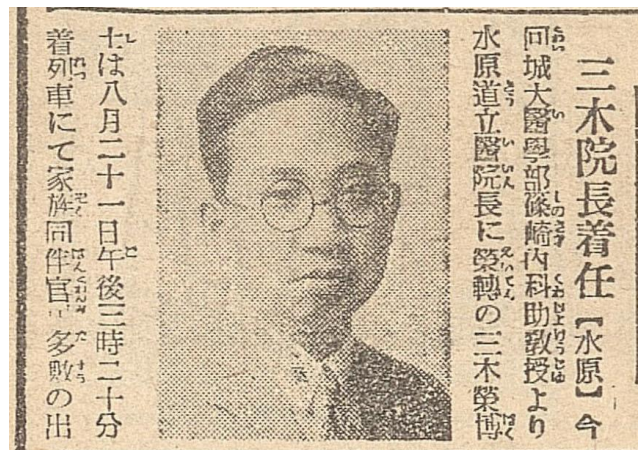


그림 2. 『조선신문』 1935년 8월 24일 5면 기사<sup>52)</sup>

위 기사를 통해 미키 사카에가 1935년 8월에 성대(盛大)의 경기도립수원의원장으로 부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수원의원 원장으로서 1944년 4월 귀국할 때까지 근무하였다. 수원의원은 ‘원장 의관(醫官)’ 외에 의관 2명, 의원 3명, 의무 촉탁 1명, 서기(書記) 1명, 약제수(藥劑手)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키 원장을 포함해 의관 3명은 모두 의학박사다.<sup>53)</sup> 또한, 수원의원의 진료분과에는 내과(소아과 병치), 외과(피부비뇨과 병치),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안과 병치)가 있다고 한다. 치과는 없고 따로 분과한 소아과, 피부비뇨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미키 원장이 진료한 과목은 내과, 소아과임을 알 수 있다.<sup>54)</sup>

미키 사카에가 수원의원 원장이 된 다음 해인 1936년에 ‘경기도립수원의원 25주년 기념 축하진담회’가 개최되고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도 편찬되었다.

그는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의 맺음말에서 수원의원

49) ‘內科 朴鍾榮氏(醫長)、三木榮氏、劉濂鎮氏’. (『陣容整備したる京城府立府民病院』. 滿鮮之醫界. 1934;(158):52.)

50) “一人- ◇三木榮氏 (醫學博士、京畿道立水原醫院長) 就任挨拶のため十六日來社 ◇田村實眞氏 (醫學博士、京畿道立仁川醫院長) 同上”(京城日報. 1935.8.17., 1면)

51) “三木院長着任【水原】今回城大醫學部篠崎内科助教授より水原道立醫院長ニ榮轉の三木榮博士は八月二十一日午後三時二十分着列車にて家族同伴官○多數の出迎へを受け着任し、二十二日千葉庶務課長の案内にて諸官廳學校會社銀行民間有志など挨拶に歴訪したが、同院長は大府府境市の人にて去る昭和二年三月九州帝國大學醫學部卒業引續き同部の金子内科に勤め同三年六月城大醫學部篠崎内科に轉じ同七年六月醫學博士の學位を得たる秀才である。寫眞は三木院長”(朝鮮新聞. 1935.8.24., 5면)

5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09407858](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09407858). 검색일: 2022.3.17.

53) “道立醫院職員(昭和十三年九月末現在)”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朝鮮道立醫院要覽. 京城: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 1938:6-7.

54) 위의 책. p. 7, 31.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상과 같은 수원의원 25년사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화녕전(華寧殿) 안에서의 개원 시대는 요람(搖籃) 시기, 관찰도(觀察道) 청사에서의 개원 시대는 유년(幼年) 시기, 독립의원 시대는 청년 시기, 쇼와 11년(1936)을 분계로 이후는 장년(壯年) 시기에 들어간다고 생각된다. 이런 각 시대의 특색은 이상으로 본문에서 서술한 바 있어 이것은 근대 조선에서 의료기관의 발달 경로를 일부분으로 보여드려 참고될 것으로 생각된다.<sup>55)</sup>

그리고 쇼와 11년도에 원사(院舎)의 큰 개축(改築)이 진행되면서(같은 해 3월 공사 시작) 진로 설비도 정비되고 면목을 일신해서 아주 큰 비약기(飛躍期)에 들어왔지만 앞으로 남은 현안(懸案)도 적지 않다. 곧 내과와 소아과, 외과와 피부부뇨과,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독립 분장(分掌), 전염병실의 개축, 구내 부지의 확장, 증기난방의 부설(敷設), 수원 지세(地勢)상에 필요하므로 우리 의원의 수원 본역 앞에서 출장소 설치, 환자와 직원의 오락 기관 설비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수행(遂行)하기는 어려우나 중앙당국의 이해 있는 지배하에 저희 직원 일치 협력해서 완성에 매진하고 있으니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유종(有終)의 미(美)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sup>56)</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미키 사카에는 자기가 새 원장이 된 것이 수원위원의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는 획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표방하였다. 그는 앞으로 수원위원의 발전을 위해 더 전문적인 분과의 설치, 병실의 개축과 의원 공간 확장, 분원 설치, 환자와 직원의 복지시설 등 여러 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그는 의사로서, 그리고 독립위원의 책임자인 의관으로서 조선에서 큰 활약을 펼쳤다.

한편, 수원의원 25주년 기념 축하 전람회에는 그가 그동

안 작성한 의과학 논문을 모아 별쇄한 『조선의적고(朝鮮醫籍考)』<sup>57)</sup>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때부터 사회적인 지위도 확보하고 금전적인 여유도 생긴 미키 사카에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인 의과학 연구에 몰두하게 됐으리라 생각한다.

### Ⅲ. 결론

미키 사카에는 1928년에 조선에 왔다. 그는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병원 제3내과에 재직하면서 시노사키 교수에 따라 고양이를 대상으로 꾸준히 동물 실험 연구를 해왔고 교실 인원과 함께 일본과 조선에서 여러 차례 학회 발표도 하였다.

그는 1930년에 경성제대 의학부 조수가 되어 1932년에 강사, 1933년에 조교수가 되었다.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짧은 동안 경성부립경비진료소(후의 경성부립부민병원)에서 일하였으며, 1935년에 경기도리수원의원 원장으로 부임과 더불어 조선총독부의 의관이 되었다. 1944년 4월에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계속 수원위원에서 근무하였다.

1930년부터 1943년까지 조선총독부의 ‘공무원’으로서 미키 사카에의 관직과 관등을 표 3<sup>58)</sup>으로 정리하였다.

55) “以上の當水原醫院二十五年史を人世に譬へて一括して言へば、華寧殿内開院時代は搖籃時代、觀察道廳舎開院時代は幼年時代、道立醫院時代は青年時代、昭和十一年を劃して以降は壯年時代に入ると考へられる。是等各時代の特色は以上本文で述べた所であるが、之は近代朝鮮に於ける醫療機關の發達経路の一端を示して參考となるものと思はれる。”(三木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承前)」, 中外醫事新報, 1936;(1233):335.)

56) “而して昭和十一年度に於て院舎の大改築はれ(同年三月起工)、診療設備も整ひ、面目を一新し一大飛躍期に入つたが、將來に残された懸案も少くない。即ち内・小兒科、外・皮膚泌尿科、眼・耳鼻咽喉科の獨立分掌、傳染病室の改築、構内敷地の擴張、蒸氣暖房の敷設、水原の地勢上必要なる當院の水原本驛前出張所設置、患者及び職員の娛樂機關設備等の諸問題がある。是等は今俄かに遂行は困難であるが、中央當局の理解ある支配の下に當職員一致協力之が完成に邁進してゐるから近い將來に必ず有終の美を結び得ることと信ずる。”(三木榮, 앞의 논문, p. 335.)

57) 1932년 11월부터 1935년 1월까지 『중외의사신보』에 실은 글을 모아 1935년에 발행한 것이다. 이 별쇄본은 미키 사카에가 당시의 조선총독부 도서관에게도 기증했기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자는 1956년에 미키 사카에가 출판한 『조선의서지』의 초고로 볼 수 있다. (三木榮, 「序言」, 『朝鮮醫書誌』, 1956 참조)

5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록자료. <http://db.history.go.kr> 검색일: 2021.5.6)



표 3. 1930~1943년 미키 사카에의 관직과 관등

연도	관등	관직	소속
1930	8등	조수 (助手)	조선총독부직속기관- 경성제국대학-의학부
1931			
1932			
1933	7등 11급	조교수 (助教授)	
1934			
1935	6등 10급		
1936	6등 6급	의관 (醫官)	지방관서-경기도-직속기관 -도립수원의원
1937			
1938	5등 5급		
1939			
1940	4등 4급		
1941			
1942	4등		
1943	3등		

선행 연구에서는 미키 사카에가 식민지 위생 행정에서 현직 의사로서 피식민지인의 실제적 삶보다는 한국의학사 탐구에서만 열정을 쏟았다고 지적하였다.<sup>59)</sup> 그러나, 미키 사카에는 1956년 5월 19일에 조선학회 대회 공개 강연에서 본직인 내과의로서 일선(一線) 진료에 종사하고 있고 진료를 소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sup>60)</sup> 본고에서 밝힌 듯이 그는 경성부립경비진료소에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참여하였고, 수원의원 원장으로서 진료 활동을 하면서 병원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두 그가 의사로서, 조선총독부의 관료로서 보여준 활약이다.

미키 사카에 본인이 말했듯이, 의학사 연구는 본직 외의 여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sup>61)</sup> 의학사 연구에서 시노사키 교수에게서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았으며, 경성제대 도서관, 조선총독부 도서관 등 여러 기관의 소장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한국의학사 연구의 초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그동안 선행연구는 미키 사카에의 의사학자로서의 모습에만 주목하고, 그의 의사로서의 활동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즉, 그의 의학사 연구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는 소홀하였다.

본고를 통해, 미키 사카에의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제3내과, 경성부립경비진료소(경성부립부민병원), 경기도립수원의원에서의 경력을 밝혔다. 그가 1932년 8월에 규

슈제국대학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 의사, 그리고 총독부 의관이라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미키 사카에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보장을 얻었다. 경제적인 기초는 그가 꾸준히 취미 활동을 참여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었다.

이상으로 미키 사카에가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로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밝혔다. 향후에는 미키 사카에가 조선에서 이론 의과학 연구 업적을 중심으로 그가 의사학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 『朝鮮總督府官報』.
- 『京城帝國大學一覽』.
- 『九州帝國大學一覽』.
- 朝鮮總督府醫院.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京城:朝鮮總督府醫院. 1928.
- 朝鮮醫學會. 『第十七回朝鮮醫學會總會順序(昭和四年)』. 1929.
-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朝鮮道立醫院要覽. 京城: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 1938.
- 京城府社會課 編. 『京城府社會事業要覽』. 京城:京城府社會課. 1934.
- 大日本博士錄編輯部 編. 『學位大系博士氏名錄 昭和12年用』. 東京:發展社出版部. 1937.
- 東西醫學士編輯部 編. 『日本醫學博士錄』. 東京:皇國圖書株式會社創立事務所. 1944.
- 醫海時報, 京城日報, 中央日報, 每日申報, 朝鮮新聞.
- 三木榮. 「間腦ニ於ケル含水炭素新陳代謝調節中樞ニ關スル實驗的研究」. 福岡醫科大學雜誌. 1932;25(5):135-232.
- 三木榮. 「ルキス體ト新陳代謝」. 朝鮮醫學會雜誌. 1929; 19(11):170.
- 三木榮. 「間腦殊ニ灰白結節ト糖新陳代謝トニ關スル實驗的研究」. 朝鮮醫學會雜誌. 1931;21(11):121.
- 三木榮. 「無冤錄ニ就テ」. 中外醫事新報. 1929;(1152):

59) 서기재. 「미키 사카에의 연구와 생애를 통해 본 한일 의학 관계사」. 醫史學. 2020;29(3):1065-1100.

60) “제 본직(本職)은 내과의입니다. 쇼와 3년(1928) 봄에 규슈대학에서 경성대학으로 전직하게 되어 (쇼와) 10년(1935)까지 경성에 살다가 그 후에 수원도립의원으로 전임(轉任)해서 (쇼와) 19년(1944) 봄까지 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간 일선(一線)에서 진료를 종사했습니다만, 이상의 이업(二業)은 이것의 여기(餘技)로 완성된 것입니다. (진료를 소홀한 것이 아닙니다.)”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の刊行について』. 朝鮮醫學報. 1956;(10):151.)

61) 三木榮. 앞의 논문. p. 151.

- 499-509.
15. 三木榮. 「無冤錄ニ就テ(二)」。中外醫事新報. 1929;(1153): 601-607.
  16. 三木榮. 「無冤錄ニ就テ(三)」。中外醫事新報. 1929;(1154): 656-660.
  17. 三木榮. 「新註無冤錄攷」。中外醫事新報. 1930;(1163): 433-444.
  18. 三木榮. 「朝鮮版神應經ヲ通シテ見タ日鮮醫學ノ交渉」。中外醫事新報. 1931;(1176):491-498.
  19. 三木榮. 「京畿道立水原醫院二十五年史(承前)」。中外醫事新報. 1936;(1233):326-335.
  2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の刊行について」。朝鮮學報. 1956;(10):149-161.
  21. 「學位請求論文審査要旨」。福岡醫科大學雜誌. 1932;25(11):245-247.
  22.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重松尚義,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間腦持ニルキス體ニ關スル實驗的研究」。日本內科學會雜誌. 1929;17(2):93-329.
  23.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灰白結節機能ニ關スル實驗的研究」。日本內科學會雜誌. 1930; 18(2):155-421.
  24. 篠崎哲四郎, 稻田宣男, 伊東俊一, 三木榮, 櫻井之一, 東郷直男 외. 「再ヒ灰白結節機能ニ關スル實驗的研究」。日本內科學會雜誌. 1931;19(2):129-375.
  25. 伊東俊一, 三木榮. 「赤核機能ノ知見補遺」。朝鮮醫學會雜誌. 1930;20(11):215.
  26. 「陣容整備したる京城府立府民病院」。滿鮮之醫界. 1934; (158):52.
  27. 李忠浩. 「日帝植民地 統治下の 醫師 教育 活動 -경성 제국대학 의학부를 중심으로-」。경주사학. 1996;15: 265-304.
  28. 김호. 「醫史學者三木榮의 생애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사학. 2005;14(2):101-122.
  29. 신동원. 「미키 사카에(三木榮)의 한국의학사 연구 - 성취와 문제점」。역사문화연구 특별호. 2005:75-92.
  30. 신동원. 「라이벌: 김두중(金斗鍾)과 미키 사카에(三木榮)」。애산학보. 2012;38:83-113.
  31. 서기재. 「미키 사카에의 연구와 생애를 통해 본 한일 의학 관계사」。의사학. 2020;29(3):1065-1100.
  32. 酒井シツ. 「日本醫史學會の沿革」。醫學図書館. 1972;19(3): 249-252.
  33.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서울:청년세대. 1989.
  34. 서울大學校病院 편. 『서울대학교병원사』. 서울:서울대학교병원. 1993.
  35. 三木榮. 『朝鮮醫書誌』. 1956.
  36. 三木榮. 『醫學研究六十余年 著作目錄 付略歷』. 大阪:私家版. 1990.
  37. 酒井哲哉, 松田利彦 編. 『帝國日本と植民地大學』. 東京:ゆまに書房. 2014.
  38. 崔秀漢編著.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39. 馬繼興著. 『針灸學通史』. 長沙:湖南科學技術出版社. 2011.
  4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강점기 직원 록자료. <http://db.history.go.kr>.
  41.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index.do>.

부록 : 미키 사카에의 연표<sup>62)</sup>

날짜	활동
1903년 7월 25일	출생(原籍 大阪府堺市)
1927년 3월	규슈제국대학 의학부 졸업
1928년 6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제3내과 입국
1930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내과학 제3강좌 조수
1932년	8월 의학박사 취득(규슈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강사
1933년	1월 경성부립경비진료소 의원축탁 2월 경성제국대학 조교수
1934년	3월 경성부립부민병원 내과 진료 담당
1935년	8월 경기도립수원의원장 부임
1936년	경기도립수원의원 25주년 기념 축하전람회 개최 『경기도립수원의원25년사』 발간
1944년 4월	일본으로 귀국

62) 三木榮. 『醫學研究六十余年 著作目錄 付略歴』. 1쪽에 수록한 약력(略歷)을 참고.